

시편 묵상 38
(11/3/2023, 금)

찬양: 408(466)(나 어느 곳에 있는지)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읽기: 시편 27:4-6

말씀에 대한 이해: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한 다윗의 모습을 계속 묵상해 보자.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2)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바란 것. 시 27:4 -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의미하지만,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천막’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건물로서의 집’이나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인 ‘빠이트’를 썼다는 것이다. 다윗은 이 단어를 통하여 견고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식구처럼 거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에서 “살면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형 ‘아쇄브’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머무는 것 혹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졌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함을 믿었다. 시 27:5-6 - 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초막”과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 자신을 숨겨주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상징하는 “초막”과 “장막”이 자신을 숨겨준다는 표현은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다. 누가 승리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승리한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은 은밀한 곳에 숨겨 주심으로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도 하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도 하신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이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라는 표현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노래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는지는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을 알게 한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해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남을 용서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참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영성과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역시 우리의 영성을 드러낸다.

다윗이 평생의 소원으로 간절히 바란 것은 부귀와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며 장수도 아니었다.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성전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그토록 사모하였고, 이 세상의 수많은 부귀영화, 물질, 쾌락, 즐거움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다른 것을 향한 쓸데없는 애착을 버리기를 원했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며 찾고 또 찾기를 간구하였다.

우리가 눈 여겨 볼 부분은 다윗은 견디기 어려운 힘든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통과 동행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고 그것을 구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의 신앙의 삶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른다. 다윗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구한 것은 그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고, 눈앞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보다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을 더 바라보았음을 깨닫게 한다.

성도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하고, 참되고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급하다고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된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과 영적 교통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았다. 결국 그러한 신앙이 다윗 자신의 삶을 승리로 바꾸어 주었다.

우리는 환난 중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문제를 경험할 때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힘들때에도 궁극적 가치를 놓치지 말자.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자.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평생에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도 주님의 초막과 장막 은밀한 곳에 속에 숨겨 주시고, 우리도 높은 바위 위에 두심으로 건져 주실 것이다.

함께 묵상하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양광군(가나), 이기형(에티오피아), 최인호(케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3.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노숙자 문제와 함께 전쟁과 테러로 말미암아 미국으로 유입된 난민들의 처우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이 마련되게 하시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옵소서(시 19:14).